

지역 매 아리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행복플러스 사랑의 김치전달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26일~27일 이틀에 걸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자 22개 자원봉사 단체 및 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플러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2일간 펼쳐진 이번 행사는 첫째날인 26일에는 무, 파, 마늘 등 신선한 재료들을 다듬고 손질하여 김장양념을 준비하고, 둘째날 27일에는 1,200포기 배수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념으로 맛있는 김장김치를 부무려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00여 세대에 골고루 전달되었다.

김장에 참여한 봉사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자들의 마음이 전해져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섭 센터장은 "봉사자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김장 나누기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창업 성공 팀에게 현판전달

완주군이 청년키움식당을 통해 역량을 키워 창업에 성공한 팀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27일 완주군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단장 정재운)은 최근 우석대학교 내에서 외식창업에 성공한 우수키친(대표 김성훈)을 방문해 청년키움식당 참가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판을 통해 외식창업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관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창업에 관심있는 지역청년들에게 청년키움식당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은 앞으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밥, 꽃피다', '불스룩' 두 곳과 창업 예정인 두 곳을 포함 총 다섯 곳에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작년보다 2년 동안 참가팀 15팀을 운영해 총 58명이 외식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창업 1팀, 개인 창업 4팀, 취업 11명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경험을 쌓은 1팀도 내년 창업을 앞두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비봉면 폐기물 대책위원회 · 완주 적폐청산 행동연대 70여명은 27일 완주군청광장에서 "비봉면 보은 매립장에 불법 독성폐기물 침출수 피해에 대한 주민 생존권 결의대회를 가졌다.

비봉면, 주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완주군, 보은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이전 촉구

완주군 주민들이 비봉면 보은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비봉면 폐기물 대책위원회(비폐대 이하)·완주 적폐청산 행동연대(완적행 이하) 70여명은 완주군청광장에서 "비봉면 보은 매립장에 불법 독성폐기물 침출수 피해에 대한 주민 생존권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비폐대·완적행은 "불법 고화

토 폐기물 '독성 침출수'로 인해 산을 지켜오던 나무가 말라죽고, 두더지와 지렁이 등 생명체들이 쓰러지고 있다." 또한 "정정 완주의 이미지 실추로 농산물 판로 마저 끊겨 농민들이 큰 타격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 비봉면 폐기물 대책위원회(위원장 유희빈)는 "불법 고화토 폐기물을 즉각 걷어내라"며 "완주군, 전북지

방경찰청, 전라북도, 환경부, 국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응답하라"고 말했다.

완주 적폐청산행동연대(권오석)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우리고향 비봉은 방치됐다. 갈 곳도 없다. 죽음의 땅에서 할 수 있겠는게 무엇이 있겠는가"며 "폐기물을 즉각 걷어내라"고 토로했다.

한편, 완주군은 성분결과, 폐기물 일부에서 폐놀과 비소, 구리 성분이 기준이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거작업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재능기부 '행복의 집 2호' 탄생

김제시, 광활면 회령마을 다문화가정서 현판식

김제시는 27일 광활면 회령마을 다문화가정에서 박준배 김제시장과 사회직업, 봉사단체,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기부 '행복의 집 2호' 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주거 복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재능기부 행복의 집' 사업은 지난해 11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주택 전체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행복의 집 1호'를 탄생시킨데 이어 '행복의 집 2호'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번 재능기부 행복의 집수리 사업에는 김제시 건축과 및 사회적 기업(상우산업개발 및 수인테리어), 자활기업 치우드림,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등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월부터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달 초부터 화장실(욕실)개량, 주방교체,

도배장판교체, 창호공사 등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달 중순 완료하였다.

이날 박준배 시장과 사회적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 내·외부를 둘러본 후 '행복의 집 2호' 현판을 달아주는 한편, 광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의용소방대는 차량이불세트 3채와 소화기 2대를 대상 가정에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해 행복의 집 2호점이 탄생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공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집수리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뜻깊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장

김제시에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을 12월 1일 9시부터 개장하여 운영한다. 실내수영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수영장 보수 및 타일교체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수영장 바닥 및 벽체 타일교체공사와 기계설비,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시설을 보수하였고 개인 사물함을 교체 했다고 밝혔다.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 토요일 오전6시부터 오후4시, 일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이며, 휴장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월5만원, 일일입장은 2,5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수급자는 50% 감면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헬린지 100°C',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완주군의 정책 연구모임인 '헬린지 100°C'가 중앙부처 대회와 공모 등 각종 행사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수상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향상 공모에 전국 최다인 3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일궈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내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 연구모임인 '헬린지 100°C' 프로젝트가 전남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맞춤형 핵심리더 육성과 직위 역량강화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인사관리 혁신분야, 성

과관리와 전문성 제고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는 완주군과 대구광역시 등 광역과 기초 29개 기관이 참여해 1차 심사에서 10개 지자체가 압축 선정됐고, 이날 최종 수상에서 완주군이 최상위권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창의성과 효과성, 파급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기관을 선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 '헬린지 100°C' 프로젝트는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용 1년 이내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정책특강과 맛있는 토크 등 소통강화에 주력하는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얻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27일 완주군은 원광보건대학교 WM관 3층 라닝룸에서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 백준흠 총장, 정현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원광보건대-익산시 일자리 창출 '맞손'

평생직업교육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완주군(군수 박성일),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평생직업교육을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27일 완주군은 원광보건대학교 WM관(원광대학교테크노마켓) 3층 라닝룸에서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 백준흠 총장, 정현을 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대학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월5만원, 일일입장은 2,5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수급자는 50% 감면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평생직업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완주군과 익산시는 수요조사, 홍보,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상시 협력으로 지역인재 취업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는 "고령화 시대에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인구가 늘고 있으며 이들에게 평생직업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창업 등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